

유럽과 이스라엘을 순방한 힝클리 대관장

마드리드 성전 기공식에도 참석

지난 6월, 86번째 생일을 맞이한 힝클리 대관장은 유럽 5개국과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 힝클리 대관장은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을 찾아 간증을 전하고 변함없이 굳건한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며,

복음 선교사와의 선교사 대화를 통하여 선교 사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방문 지역의 정부 대표 및 언론인들과의 모임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교회를 소개하는 데 노력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6월 11일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벨기에의 브뤼셀, 네덜란드의 헤이그, 덴마크의 코펜하겐, 독일의 베를린을 차례로 순방한 후,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일주일의 머물면서

구세주의 발자취를 더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순방 중에 힝클리 대관장은 특히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새로운 성전 부지를 헌납하고, 성전 기공식에 참석하여

유럽 남부 지역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될 마드리드 성전 기공을 축하했다.

사진 설명: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에 머무는 동안 힝클리 대관장과 힝클리 자매는 프레드릭스보흐 성을 방문했다. 사진 촬영: 존 앨버트, 저지 슈스



스페인의 회원들을 위해 역사적인 방문을 함

.....

6월 11일, 핑클리 대관장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도착하였다. 교회 대관장이 스페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스페인에 체류하는 동안, 핑클리 대관장은 지역 신권 지도자들과 오찬회를 가졌고, 스페인 마드리드 선교부의 선교사들을 위해 말씀을 하였으며,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의 기공식에서 말씀을 하였다.

그의 부인인 마조리 핑클리 자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그의 아내인 준, 칠십인 정원회 회원이자 서유럽 지역 회장인 딘 엘 라스 장로와 그의 아내인 제널, 스페인 출신 가운데 최초로 총관리 역원이 된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와 그의 아내인 크리스티나가 핑클리 대관장을 수행했다.

핑클리 대관장은 마드리드의 남동 지역인 모팔레즈의 성전 부지에 운집한 약 2,000명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전은 매우 신성한 곳입니다. 여러분과 마드리드의 관리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짓게 될 건물은 아름다운 명물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건물에 성전, 스테이크 센터, 선교사 훈련원 및 기타 일부 시설이 입주하게 되어 성도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건물의 구조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건물이 들어서는 대지와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질 것입니다. 이곳은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며, 사랑에 넘친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십시오...우리가 얼마나 충실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음대로 생활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현납 기도가 끝난 후, 핑클리 대관장과 그의 일행은 기공식에 참여하였으며, 참석한 소년과 소녀 한 명씩에게 차례로 삼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핑클리 대관장이 기공식의 현장을 떠날 무렵, 주님의 예언자가 스페인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는 사실에 회원들이 크게 감동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으며 우는 회원들도 있었다.

벨기에의 회원들이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음

.....

핑클리 대관장과 그의 일행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이어 벨기에의 브뤼셀로 갔다. 그들은 브뤼셀 공항에서 미국의 나토 상주 대표인 로버트 이 헌터 대사와 벨기에 주재 미대사인 앨런 존 클린켄의 영접을 받았다.

브뤼셀에 체류하면서 핑클리 대관장은 6월 12일 오후에 복음 선교사와 모임을 가진 뒤, 그 날 저녁에 브뤼셀 지역에서 모인 약 1,500명의 회원과 모임을 가졌다. 모임을 위해 이미 세 시간 전부터 도착해 있던 회원들도 많았다.

핑클리 대관장은 전날에 있었던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의 기공식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회원들이 깊은 신앙과 넘치는 사랑을 보여 주고 기도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였다.

핑클리 대관장은 회원으로서 행해야 할 책임을 잊지 말도록 권고하면서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회복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1)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신권을 통해서 받은 놀라운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 (2) 신앙이 땅에 증가되게 하며, (3) 주님의 영원한 성약이 이루어지게 하며, (4)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함. (교리와 성약 1편 참조)

네덜란드의 회원들에게 복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권고함

.....

6월 13일, 네덜란드의 헤이그로 간 핑클리 대관장은 두 차례의 모임에서 말씀을



위로부터: 스페인, 마드리드. 몹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전 지어 있는 약 2천 명의 회원들이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 기공식에 석하려고 모였다.

스페인, 마드리드. 핑클리 대관장 성전 기공식에 말하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핑클리 대관장의 초대 받은 두 명의 어린 다른 분들과 함께 기공식에 참여하고 있다.(좌로부터)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핑클리 대관장; 윌라 헤라, 스페인 법무부 중무 국장; 도나 카르멘 알바레스 아레나스, 마드리드 시의 부시장; 다니엘 바스테라, 스페인의 사진 촬영: 존 엘 하트, 처치 뉴스



하였다. 첫번째 모임은 복음 선교사를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저녁 모임은 회원들을 위한 것이었다. 회원들과의 모임에는 네덜란드의 전역과 벨기에에서 온 약 2,0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벨기에에서 온 회원들은 플랑드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 "부부는 남편과 부인으로서 서로에게 진실하고 충실하십시오. 자녀를 가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자녀와 가까이 지내며 자녀가 복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하였다. "비굴하고 천박한 처신을 삼가하고, 여러분의 신권에 적합한 생활을 하십시오."

청소년들에게는 "여러분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복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십시오. 교회 회원들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는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은 이 생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이 생을 마치고 난 후에도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가 정신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익히면 생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였다.

덴마크의 회원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권고함

교회 대관장과 그의 일행은 6월 14일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도착하여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과 두 차례의 모임을 가졌고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복음 선교사를 위해 또한 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힝클리 대관장은 회원들에게 회원의 수를

배가하도록 권고하였다. 예언자는 덴마크의 교회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가운데 덴마크의 최초 선교사인 피터 오 한센이 북 유럽 국가에서 선교 사업을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26,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나, 이들 중 거의 모두가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 덴마크의 회원 수는 약 5,000명을 웃돌고 있으며 1974년 스테이크가 처음 생긴 이후로 회원의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힝클리 대관장은 "5년 내에 덴마크의 회원 수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이날 회원들은 모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코펜하겐 스테이크 센터 주위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을 이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회원의 배가 운동에 충력을 기울이고 신앙을 갖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 회원 배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회원들에게 간증을 전하고 사랑과 관심의 뜻을 전하였다.

덴마크에서 하루를 체류하면서 힝클리 대관장은 코펜하겐의 북쪽에 있는 유명한 칼 블로호의 유화의 고장이기도 한 프레드릭스 보호 성을 방문하였다. 그는 성모 마리아 교회를 방문하여 덴마크의 조각가인 베르텔 토르발센의 원작인 그리스도 상과 십자가도 상을 관람하였다.

독일에 "가족을 강화해야 함" 이라는 메시지를 남김

힝클리 대관장은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 지역 대회 참석을 끝으로 유럽 방문의 일정을 마쳤다. 그는 베를린에서 신권 지도자를 위한 훈련 모임에서 두 차례 말씀하였고, 베를린 지역의 두 개의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하였으며, 베를린의 두

부터 벨기에, 브뤼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다음 분들을 만나고 있다: 앨런 존 블린켄 대사(좌로부터 세 번째), 벨기에 주재 미대사: 로버트 이 헌터(우), 미국인 NATO 상주 대표: 사진 촬영: 수전너 퍼킨스: 존 엘 하트 처치 뉴스

덴마크, 코펜하겐, 6월 14일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한 힝클리 대관장과 힝클리 지아가 교회 회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에 머무는 동안 힝클리 대관장과 힝클리 지아는 프레드릭스보호 성을 방문했다. 이 상에는 구세주의 생애를 묘사한 칼 하인리히 블로호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힝클리 대관장은 블로호의 작품들이 구세주를 묘사한 가장 훌륭한 그림들 중의 일부라고 말했다.

개의 주요 신문사 대표를 만났고, 일반 회원을 위한 지역 대회에서 말씀을 하였다.

기자들과 만난 힝클리 대관장은 독일에 무슨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변하였다. "저는 독일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인도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 어디를 가나 세상의 표준은 타락하고 있으며 가정 생활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들에게 가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부모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며,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가정을 갖도록 하십시오. ... 가정 생활이 있고서야 국가의 발전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지역 대회에서 말씀을 하면서 기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특징은 성직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계시를 믿고 있다는 점을 그는 기자들에게 설명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힝클리 대관장은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순결하라고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권고하며,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을 진실하게 이어 나가십시오."라고 말씀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구세주의 발자취를 찾아감

힝클리 대관장과 부인인 힝클리 자매는 유럽 여행을 마친 직후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구세주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일생을 보낸 그 곳에서 일주일을 지냈다.

대관장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립바왕 앞에 서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했던 곳인 가이사랴, 고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경계선인 단, 고대에 성이 있던 므깃도, 예수가 어린 시절부터 생활해 온 나사렛, 주님이

산상 수훈을 들려주었던 팔복의 언덕, 구세주가 침례를 받았던 요단강, 여호수아의 군대가 큰소리로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린 여리고, 옛날 유대의 요새였던 마사다, 사해, 사해의 두루마리가 발견된 쿨란을 방문하였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대관장과 힝클리 자매는 베들레헴 부근의 구세주가 탄생한 출생지, 베들레헴 교외의 목동들의 들, 예루살렘의 옛 도시, 다락방, 겐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 및 동산 무덤을 찾았다.

6월 21일 힝클리 대관장은 예루살렘 근동 연구 센터에서 열린 노변의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

"예루살렘은 금년에 정도 3,0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매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징과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루살렘만큼 역사적인 유산을 가진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겐세마네를 방문하여 거리를 지나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늘에 앉아서 경전을 읽던 중 주님이 너무나 괴로워한 나머지 피의 땀방울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간구하시던 일이 생각납니다. ...

주님은 증오와 분쟁이 그치지 않는 현실에 사랑과 평화라는 두 가지 위대한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녕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리가 없으며, 시기심, 비천한 행위 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보다 숭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위로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목자들의 들에서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성구를 읽고 있는 힝클리 대관장; 예루살렘,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목자들의 들을 방문하고 있는 힝클리 대관장과 힝클리 자매; 예루살렘, 동산 무덤을 포함해서 성지의 가장 성스러운 유적지들을 다시 방문하는 힝클리 대관장과 힝클리 자매 사진 촬영: 존 엘 하트, 처치 뉴스



신임 선교부장과 선교사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6월 23일 이스라엘에서 귀국한 다음 날, 핑클리 대관장은 86번째의 생일을 맞이하여 사상 최대 규모로 모인 신임 선교부장과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하였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요한복음 20:27 참조) 선교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선교사들의 생활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만큼은 심어 주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7개의 나라에서 온 선교부장들은 47개국에서 봉사하게 된다.

한편 핑클리 대관장은 선교부장 세미나가 열리기 약 2주 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대관장의 사무실에서 위성 방송을 통하여 18,000명의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하였다.

핑클리 대관장은 말씀을 통하여 복음과 선교 사업에 대해 열렬한 간증을 하면서, 선교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자신을 잊어버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저는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우주의 하나님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한 위대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저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분과 기도를 통해 나누는 대화에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축복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같이 하는 저의 동반자이며, 날이면 날마다 곳은 날씨가 어려운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고 훌륭한 헌신의 정신으로 대문과 마음의 문을 여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며 축복을 하며 지식과 간증을 전해 주는 저의 친구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여러분 자신도 구원하게 됩니다. 이기심을 자제하십시오. 그러면 이기적이고 오만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언제나 영원한 선을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겸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관장은 주님의 영을 얻도록 주님께 간구할 것을 선교사들에게 권고하였다.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 합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선교사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개척자 축제 행사

6월 24일 월요일에 핑클리 대관장은 유타 주 남부에 있는 건축물로 그의 할아버지가 1867년에 세운 코브 요새를 방문하여 가정의 밤 노년의 모임에 참석한 15,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 하였다.

대관장과 핑클리 자매는 요새의 외곽에서 마차를 타고 코브 요새로 갔는데 그의 마차의 뒤에는 유타 주의 주 승격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타 주를 횡단하고 있던 75대의 100주년 기념 마차 행렬이 1마일이나 늘어서서 따르고 있었다.

모임에서 핑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제가 아는 한, 사람들이 산의 계곡으로 왔던 일과 견줄 만한 것은 일찍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현을 통해서 본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에 가본 적이 없는 산악 지대에 수천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간 대담성은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핑클리 대관장은 개척자들이 보여 주었던 신앙과 그들이 겪은 온갖 시련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려주면서 요새의 건축을 위해 브리감 영 대관장이 이 지역에 파견한 핑클리 대관장의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었다. 핑클리 대관장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같은 개척자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커다란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저는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

고 물려 받은 기업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 치른 대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들 후인 6월 29일 핑클리 대관장은 “바로 이곳이다” 주립 공원을 재헌납하고 유타 주 승격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였다. 부인인 마조리 핑클리 자매,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그의 부인인 프란시스 몬슨 자매,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과 그의 부인인 루스 파우스트 자매 등이 그를 수행했다.

핑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우리의 뒤에는 매우 아름다운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입니다.” 핑클리 대관장은 유타 주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기념비의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를 얘기하였다.

초창기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났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물몬들은 영주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햇빛에 그을려 굳은 대로 굳은 흙을 파고 현대식 관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설계하고, 집, 학교, 공공 건물, 문화 시설을 위한 공간, 웅장한 태버나클,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유타 지역에 솔트레이크시와 수백 개의 마을을 세우고 캘리포니아 주, 네바다 주, 애리조나 주, 아이다호 주 및 와이오밍 주에 최초의 앵글로색슨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희생”

홍 병 식(대전 선교부장)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큰 희생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희생을 오히려 즐겁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즐겁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기저귀를 가는 일이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 롱비치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에 접어든 여자 한 분은 불임증에 걸려 있는 딸의 수정 난자를 이식 받아 딸의 아이를 낳아 준 사례가 있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들이는 정성을 우리 부모에게 들인다면 모두가 효자 효녀 상을 받을 자격을 얻을 것입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을 무척 귀여워 하고 있었습니다. 뽀뽀를 하고 껴안아주고 등에 말 태우기도 하면서 아이가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기 할머니가 애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

애야, 네 자식이 그렇게도 귀여우냐?” 그 말에 그 아들은 “어머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 아들녀석이 귀여울 정도가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아버지는 아기에게 뽀뽀를 했습니다. “애야, 네 자식이 그렇게도 귀여우냐?” 그 아기 할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글썄 왜 그러세요. 이 아기가 귀여운 정도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다는 듯이 아기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다 된 할머니는 한숨 반 꾸중반의 어조로 말씀을 했습니다. “나도 너를 그렇게 길렀다.” 그때 철이 덜든 아기 아빠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까지 귀여워 했을려고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산실에서 튼튼한 아들을 분만했습니다. 산모가 정신이 든 후에 간호원이 갓난 아기를 들고 들어와서 산모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산모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 아기는 양쪽에 귀를 갖지 않고 태어난 것입니다. 귀만 없었을 뿐 그 아기는 잘 자랐습니다. 비록 귀가 없다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아이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자기의 아들의 귀가 없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열 여섯 살이 되었을때 성형 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귀를 기증할 사람만 있으면 감쪽같이 귀를 이식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

다. 그 말에 고무를 얻은 그 부모는 귀를 기증할 사람을 찾기에 노력과 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년 동안 단 한 건의 기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귀의 기증자를 찾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여자들과 데이트도 해야 될 나이가 된 그 십대의 아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아버지는 단 한 가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기증을 받은 귀를 성형 외과 의사는 성공적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양쪽 귀가 버섯이 있는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여자 친구도 많이 생겼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그는 사업적인 면에서도 큰 성공을 했습니다. 중년이 다 되어 대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귀의 기증자를 알고 싶었지만 자기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는 병환에 걸려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에 관 안에 편안히 잠드신 어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했을때 그는 어머니의 두 귀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귀의 기증자가 없자 자기의 귀를 떼어서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일생 동안 머리로 귀를 가리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는 귀가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높고 높으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감격하여 견줄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는 비통을 겪어 보고 자식을 낳아 길러 본 사람들은 무한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약간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쓴 잔을 회피할 수도 있었던 구세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부름에 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과 영의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큰 희생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희생을 오히려 즐겁게 하셨을 것입니다.

칠십인 회장단의 일부가 개편됨



대관장단은 일 시 텡기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의 새로운 회원으로 부름 받은 것을 발표하였다. 그의 부름으로 칼로스 이 에이시 장로가 해임되어 솔트레이크 성전장을 맡게 되었다. 에이시 장로의 해

임으로 엘 알든 포터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의 선임 회원이 되었다. 텡기 장로는 1991년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지지되어 교회의 유타 주 남부 지역 회장과 교회의 선교사부 집행 책임자 보조로 봉사하였다. 그는 아프리카 지역 회장단, 선교부장, 선교부장단 보좌, 지역 대표 및 감독으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유타 주 바운티풀 시에서 태어난 텡기 장로는 유타 대학교 법학 대학과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부인인 조안 웰즈 텡기 자매 사이에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포터 장로는 1987년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 받았다. 2년 후 칠십인이 제일 정원회와 제이 정원회로 나뉘면서, 그는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았다. 1992년에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과 칠십인 회장단의 회원으로 지지를 받았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출생하고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한 포터 장로는 선교부장, 지역대표, 스테이크 부장 및 감독을 지냈다. 그는 부인인 셸리 파머 포터 자매 사이에 여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70세인 에이시 장로는 1976년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를 받았고 1980년에서 1986년까지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를 하였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교회의 유럽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1989년에 그는 두 번째로 칠십인 회장단의 회장으로 지지를 받았고 1995년에 선임 회원이 되었다.

브리감 영 대학교 새로운 한국 학생회 회장단 선출

유타 주 프로보 시에 자리잡고 있는 교회 재단 학교인 브리감 영 대학교의 1996-1997 학년도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되었다. 신임 학생회는 이호남 교수(한국어 학과장)를 고문으로 하고 회장에 김현수 형제(경영 대학원), 부회장에 문승용 형제(경영 대학원)를 비롯한 다수의 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5월부터 활동 중이다.

사립 학교로서는 최대 규모와 학생 수를 자랑하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는 현재 대학원, 학부, 그리고 언어 교육 과정을 합쳐 120명 정도의 한국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브리감 영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학교 시설과 좋은 학업 분위기로 인해 교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비회원 한국 학생들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 학생회는 1982년에 조직되어 지금까지 약 14년간 이곳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한국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오고 있다. 신임 학생회 역시 한국 학생들이 현지 적응과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락처: 이호남 교수 (801)373-4818

김현수 형제 (801)225-7968

홈페이지: <http://www.byu.edu/choiy/korean.htm>



왼쪽부터: 김현수 회장, 이호남 고문, 문승용 부회장, 최용훈 총무

1996년 하계 청소년 대회

서울 스테이크

서울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가평군 울길면에 있는 울길 초등학교에서 '96년도 하계 청소년 대회를 개최하였다.



첫째 날에는 대대 이름인 예언자들을 주제로 성극을 구성하여 각 대대별 성극 경연 대회를 하였다. 미숙하지만 진지한 청소년들의 연기를 통하여 예언자들의 사명과 생애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탄생, 사십 일간의 금식, 침례, 십자가에 달리심 등으로 나누어 진행한 베이스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야외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그분의 회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청소년들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해 침례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한 활동으로 구도자로 참석하신 신당 와드의 주은경 자매가 직접 침례를 받는 의식도 함께 곁들여졌다.

셋째 날에는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육 대회와 야외 물놀이가 진행되었고,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고대하던 캠프 화이어 및 포크 댄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날의 모든 프로그램은 실제로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여 미래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한 날이기도 하였다.

대회 마지막날의 간증 모임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대회를 참여하면서의 느낌과 간증을 나누었고, 상반기 세미나를 결산하는 경전 퀴즈 대회가 대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이 그 동안 쌓은 경전 지식에 대한 자용을 겨루었다.

청소년과 고문 약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서울 스테이크 내 청소년들의 신앙이 더욱 발전해 나가고, 서로간에 사랑과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 (조형민)

서울 서 스테이크

서울 서 스테이크 하계 청소년 대회가 교리와 성약 88편 74절을 주제로 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일대에서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개최되었다.

대회 전날까지 내린 장마비로 오전까지도 잔뜩 불어 있던 강물이 첫번째 프로그램인 뗏목 여행을 진행할 때에는 알맞게 줄어들어

무사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다가 위협에 부딪혔을 때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간증을 갖게 되었다.

둘째, 셋째 날에는 소백산 하이킹, 퀴즈 대결, 순결의 법 토론, 캠프 화이어, 무도회, 세미나, 고수 동굴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하이킹에서는 자매들이 눈을 가리고 형제가 자매를 목적지까지 인도함으로써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고, 청남, 청녀가 분반을 하여 순결의 법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시간에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김용 부장은 '선교 사업을 준비함'이라는 주제로 가진 세미나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선교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

대회 기간 동안 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스테이크 역원과 감독단들이 대회장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서울 서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극기하는 자세를 배우고,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지열)

안양 스테이크

'96 안양 스테이크 하계 청소년 대회가 경기도 과천 청소년 수련장에서 7월 23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치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와 엘마서 5장 50절을 주제 성구로 한 이번 청소년 대회는 작지만 알차게 진행되었다.

첫날 진행된 'My Way'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달란트'의 비유를 응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둘째날 진행된 '발자취를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동안 배웠던 성역을 공과와 산행을 통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모임이었다.

마지막 날인 셋째날에는 오전에 경전 경시대회를 하였고, 이어서 '미니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의 운동 모임을 가졌다.

청소년 대회를 마치고 첫번째 토요일인 27일에는 스테이크 센터에서 간증 모임을 가졌고 많은 청소년들이 둘째날 있었던 '발자취를 따라서'에 관한 깊고 강한 간증을 나누었다.

안양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이번 대회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진행된 활동과 텐트 생활, 직접 지어서 먹은 식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서로 간의 따뜻한 우정, 활동의 즐거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민희)

인천 스테이크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인천 스테이크에서는 멀리 경북 안동에서 청소년 대회를 개최하였다.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4시간 여를 여행한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짐을 정리한 뒤 '가요 경연 대회 및 댄스 파티'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숨은 노래와 춤 솜씨를 엿볼 수 있었다.

이틀째에는 안동 댐, 안동 민속 박물관, 안동 하회 마을 관광을 하였으며, 저녁에는 낮 동안 관람하면서 보고 배운 내용들로 '풍물 기사 발표'를 하였다. 또한 이날에는 '부모와의 갈등', '안식일 지키기', '이성 교재' 등의 주제로 역할극을 통해 계명과 표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다음날에는 '자유의 깃발을 찾아서'라는 모임이 진행될 안동 댐으로 자리를 옮겨, 각 대대의 깃발을 빼앗는 서바이벌 게임과 아울러 신나는 물놀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저녁에는 고태우 형제와 이해숙 자매가 잘 준비한 무도회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스테이크 부장단이 모두 참석해서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더욱 값진 모임이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청소년 대회를 결산하는 간증 모임을 가졌다. 특별히 학교 보충 수업을 포기하고 대회에 참석한 고등학생 형제들은 이 대회에 참석하길 잘했다고 간증을 전함으로써 세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 못지 않게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었다. (이주대)

강서 스테이크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80여 명의 청소년과 고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충남 보은 범주 초등학교에서 니파이일서 11장 1절을 주제로 청소년 대회를 개최하였다.

첫째 날에는 소개 모임과 단합을 위한 체육 활동을 하였으며, 식사 후에 진행된 노년의 모임에서는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연사가 되어 참여하였다.

둘째날 아침, 정태걸 형제의 세미나에서는 다른 교회 예언자와 우리 교회 예언자의 차이점을 각 대대원들이 토론을 하여 그것을 간단한 역할극으로 발표하였다.

뒤에 이어진 맛자랑들은 형제들에게 줄 넥타이를 손수 바느질해서 만들고 형제들은 자매들에게 줄 음식을

직접 만들었다. 준비한 음식과 넥타이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복돋아 주었다. 몇몇 청년들은 대회가 끝난 후 안식일에 청년들이 전해 준 넥타이를 메고 간증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높은 산 인물 탐험 시간에는 대대별로 나눠져 전신 감주를 만들어 입고 간단한 경전 퀴즈를 풀었다.

뒤이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하나가 됨이란 주제로 베이스 활동을 하였으며 특별히 마련된 액정 화면을 통해 야외 영화 감상을 하였다.

셋째 날에는 요셉 스미스의 생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된 속리산을 등반하면서 OL활동을 했다. 특히 첫번째 시현 포스트에서는 청소년 각자가 숲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문장대 꼭대기에서는 요셉 스미스가 순교하기 전에 즐겨 부르던 "슬픔에 잠긴 나그네"를 모두 함께 불렀다. 또한 주변의 재료를 사용해 시온을 건설해 보기도 했다.

9시간 여에 걸친 산행이었지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를 보여 주었다.

저녁에는 "가족은 영원해"라는 주제로 축복제와 무도회를 가졌다.

마지막날 간증 모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청소년 대회를 정리하고 새롭게 신앙 생활을 결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민경)



수원 스테이크 · 강릉 원주 지방부

상원도 주문진 주영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80여 명의 청소년과 교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앙개조 13조를 주제로 합동 청소년 대회가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경전 경시 및 퀴즈 대회와 대별 장기 자량이 진행되었고, 둘째날에는 수원 스테이크의 이재섭 형제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부의 필요성과 요령"이란 제목의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뒤이어 '즉석 말씀 대회'에서는 구분철 고등 평의원의 진행으로 청소년들의 기발한 재치에 한껏 웃을 수 있는 한마당이 되었다. 또한 대회장의 특성을 이용한 '베이스 캠프'는 학교 운동장에서 주문진 소돌 해수욕장까지의 극기 훈련과 베이스 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를 배웠다. 바다의 소금물이 흠뻑 젖은 채로 다시 소금강 계곡으로 방향을 바꿔 그곳에서 어항과 그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활동을 하면서는 해 저무는 줄 모르고 어릴 때의 추억을 재현했다.

셋째 날에는 서울 서 신학 연구원 이재훈 형제의 "모범이 훈계보다 나옴과 다윗의 모범을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 모임 후에는 선교 사업에 대한 또래별 모임에 이어, 체육 대회가 운동장과 해수욕장에서 진행되었다. 해변에서는 기마전과 모래성 쌓기, 모래 조각 만들기 등의 게임을 즐겼다. 여름을 식혀 주는 비 덕분에 기다리던 포크 댄스는 교실에서 진행해야 했다.

마지막 날에는 금식 간증 모임에서 각자의 간증을 전했으며, 돌아오기 전에는 학교를 깨끗이 청소해서 본래의 깨끗한 이미지를 되돌려 주었다.

모처럼 서울과 지방의 청소년들이 자리를 함께 한 이번 대회는 말일성도로서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서로간에 깊이 간직한 사랑과 우정을 깊이 간직할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처소로 발길을 돌렸다. (최미경)

광주 스테이크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기를 가르치며"(모사이야서 4:15)라는 주제 성구와 신앙을 키우고 간증을 강화시키며, 재능과 지도력을 발전시키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 아래 96년 광주 스테이크 하계 청소년 대회가 지난 8월 5일부터 2박 3일 동안 해남 마산 동 초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크로스컨츄리를 예년과는 다르게 준비하여 청소년들이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원의 계획'이라는 프로그램도 단순히 청소년들은 앉아서 듣기만 하는 식의 모임이 아닌 그들 자신이 직접 죽어서 별, 달, 해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들 마음속에 해의 왕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들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었다.

둘째날에는 포크 댄스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댄스를 선보여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배우는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날 봉사 활동 프로그램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꺼이 돕고자 할 때 그 기쁨이 배로 커짐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짧게만 느껴졌던 2박 3일 동안의 일정 속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한 고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마음속에 담아 올 수 있었으며,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모든 모임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소망들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박진희)

순천 지방부

지난 7월 29일부터 2박 3일간 소백 산맥의 끝인 백운산 기슭 담곡 초등학교에서는

25명의 청소년과, 6명의 상호부조회 회원, 5명의 고문과 8명의 지도자가 함께 한 가운데 첫번째 지방부 청소년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기간 중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은 세미나를 통해 지혜롭게 시간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으며, 여수 지부의 김용숙 자매의 워크스를 통해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크로스컨츄리를 통해 사랑과 인내와 복음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대별 봉사, 체육 모임, 무도회 및 캠프 화이어와 캔들 파이어는 청소년들 상호간에 깊은 사랑과 우정을 심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구도자로 참석한 황세훈 형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침례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여러 청소년들이 새롭게 봉사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게 되었다. 또한 크로스컨츄리에서 탈진한 자매를 위해 봉사한 김상민 형제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아름다운 숲과 계곡, 태고적의 이끼 내음을 맡으며 함께 한, 신생 순천 지방부의 청소년들에게 이번 대회는 오랫동안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청소년 회장단)

부산 스테이크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남 양산 군에 위치한 해운 청소년 수련장에서 부산 스테이크 96 하계 청소년 대회가 열렸다.

신앙개조 13조를 주제로 30여 명의 청소년 지도자들과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한 이번 대회는 개인적인 신앙을 키우고 간증을 강화시키며 재능과 지도력을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이 유사한 생각과 표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청소년들을 새로 사귀며,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에 목적을 두었다. "오랜 친구와 함께, 새로운 친구와 함께, 회원과 함께, 지도자와 함께 가자 청소년 대회로"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참석



세미나에서 양기욱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들

자들이 대회 규칙과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을 배울 수 있었다.

29일 모두 9대로 나누어진 대원들이 대별 활동을 시작으로 첫날 활동이 시작되어 미니 올림픽과 단체 수영 등 유동적인 활동을 한 후 장기 자랑 순서에서는 노래, 춤 등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재능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이 날의 마지막 활동으로는 헬로우 파티가 있었는데 더운 여름밤을 공포로 떨게 한 재미있는 경험이었으며,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 참석자들이 모여 하늘의 달과 별을 올려다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한 간증을 가지기도 하였다.

대회 둘째날에는 등반을 하었는데 여러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활동을 함으로써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간증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오후에는 수영과 퀴즈 대회가 있었고, 이날의 마지막 모임으로 캠프 화이어가 진행되었는데, 이 모임에서는 낮설게 만났던 대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어울리고 즐기며 사랑을 나누었고, 조별 발표를 통해 각 대대원들 사이에 어느새 자라난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날에는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전영준 형제의 "청소년관과 신앙 생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고, 이어서 3분 발표 순서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었는데 때 묻지 않는 청소년들의 간증을 통해 참석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폐회식을 한 후에 청소년들이 다시 대대별로 끼리끼리 모여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며 힘들게 모임을 준비했던 고문들은 더 나은 청소년 모임을 위

한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었다. (이희숙)

마산 스테이크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마산 스테이크에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인간의 일이다"(교리와 성약 3:3)라는 주제로 하게 청소년 대회가 지리산에서 개최되었다.

청소년과 고문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고문들의 모범과 봉사로 더욱 값진 대회가 되었다.

첫째 날에는 집결지인 진주 와드에 도착해서 개회를 한 후, 고등 평의원인 변춘구 형제가 '선교 사업 세미나'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도덕적 표준과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전해 주었으며,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어울려 하나가 될 수 있는 무도회가 진행되었다.

둘째날에는 많은 신권 지도자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지리산 등반이 시작되었다. 입구에 도착해서 등산을 시작한 지 30분쯤 되어 서부터는 모두가 지치기 시작했으나 서로들 '힘내세요'라고 격려했으며, 2시간 여를 올랐을 때 이제 한계가 왔구나 싶었을 때 누군가가 먼저 부르기 시작한 찬송가를 따라 부르며 지리산이 찬송가로 메아리 칠 때 청소년들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4시간 여를 올라 드디어 지리산의 정상인 천왕봉에 도착했다.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정상에 도착했다는 기쁨과 함께 가진 모임에서 배태호 스테이크 부장은 청소년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천왕봉 아래의 지역을 선교 사업의 지역으로 헌납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왔을 때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꿈', '개척자'라는 두 개의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말씀을 들었다.

마지막 날에는 선교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세미나에서 말씀을 듣고, 2박 3일간 느끼고 배운 것을 간증으로 나누면서 대회를 마쳤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간증을 얻으며 늘 함께 하는 가운데 끝까지 견디미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추억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김선경)



지리산 정상 천왕봉에 오른 마산 스테이크 청소년들

서울 북 스테이크 야영 대회

서울 북 스테이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위치한 청풍 공설 운동장에서 스테이크 야영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예년과는 달리 북 스테이크 단독으로 독신과 청소년, 유년대, 초등협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한 가운데 대회 주제를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라 함이라' 로 하여 첫째, 회원들이 구도자와 비활동 회원에게 모범을 보이는 선교 사업을 하고 둘째,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셋째, 교회 조직 원리를 이해하여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훈련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청풍 문화 단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산행은 이전 대회의 뻘뻘한 일정을 탈피하고 대별 자체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니며 스스로 능력을 키우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제천 의림지, 고수 동굴을 소유한 충북의 고적은 대회 기간 동안 참여자들에게 조상의 얼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부모님과 함께 참석한 초등협회 어린이들도 푸른 잔디 구장에서 "역할극"으로 재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근처에 위치한 학현리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잊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소년들은 대회전부터 고문들이 준비해 준 자료에 도움을 얻어 대회 끝나는 날까지 스스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처음으로 독신과 청소년, 유년대, 초등협회가 함께 가진 대회였기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맑고 푸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느낀 훌륭한 대회였다. (윤복순)

'96 하반기 부산 서 지방부 대회

3년간의 성실하고도 열정적인 선교 사업을 수행했던 허드 선교부장의 귀환을 앞두고 지난 6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 서 지방부에서는 하반기 지방부 대회가 개최되었다.

22일 저녁 신권회 모임에서 대신 지부의 강용화 지부장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가정 복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했고, 지방부 평의원인 이종빈 형제는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가정 복음 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씀한 지방부상단 제2보좌인 안종원 부장은 인일한 마음을 버리고 가정 복음 교육을 치밀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했으며, 염호경 지방부장은 신권을 지닌 형제가 모범을 보여야 하며, 생각이 곧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또한 허드 선교부장은 우리가 속한 와드, 지부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맬기세택 신권을 강화하고, 둘째,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셋째, 지침서를 잘 활용하고, 넷째, 조건 없는 사랑을 주며 높은 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23일, 2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일반 총회에서 청년인 윤선영 자매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증했으며, 귀환 선교사인 장인택 형제는 선교 사업 기간 중에 얻은 간증을 전해 주었다. 지방부장단 제2보좌인 안종원 부장은 최근 광고에 자주 나오는 DHA와 연관지어 우리 말일성도들이 가진 DHA는 물론경이라고 말씀했으며, 염호경 지방부장은 주님의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권고했다. 이어서 허드 자매는 한국 자매들이 보여 준 모범에 감사를 표하고 '모든 것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세요'라고 서투르지만 영감에 찬 한국어로 권유했으며, 허드 선교부장은 서로를 용서하고 영생의 선물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자고 말씀했다.

이러한 충만한 영적 말씀 후에 들려준 합창단의 '위대한 주여'는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충분하였다.

한편 이날 저녁에 가진 성인 총회에서 김수진 자매, 지방부장단 제1보좌인 강신용 부장, 선교부장단 보좌인 한정운 부장과 황금소 부장의 말씀에 이어 허드 선교부장은 작은 방법으로 서로를 도울 때 훌륭한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3년의 봉사기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한 장로가 병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가 있음을 압니다'라고 했으며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간증했다. 허드 선교부장은 말씀 후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내 구주 살아 계시다'를 독창으로 불러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이 메이게 하였다.

이번 대회는 허드 선교부장의 임기를 마감하며 부산 서 지방부의 새로운 도약을 하게 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준 훌륭한 모임이었다. (강명근)

서울 서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 특별 훈련 모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33)를 주제로 서울 서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 특별 훈련 모임이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흥천 대명 콘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모임은 이상태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스테이크 산하 6개(노량진, 상도, 봉천, 낙성대, 신림, 사당)와드의 감독단 및 서기와 고등 평의원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단 등 23명이 참석하여 교회 지도자로서의 모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 저녁 11시부터 시작된 첫번째 분임 토의 시간에는 두 팀으로 나뉘어 현재 각 와드별로 중점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영적인 교회 활동과 선교 사업의 활성

화 방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실시하고 대책 방안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 성도들의 영적인 발전이 곧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인식하고 가정의 밤 매주 갖기, 한 해 동안 물문경 일독하기, 모든 모임은 준비 모임과 평가 모임을 갖고 정시에 모임을 시작해서 정시에 끝나기 등을 다짐하는 장이 되었다.

이튿날 아침 쉼 숙 기도를 시작으로 고등 평의원인 서훈 형제의 '구원의 계획'과 봉천 와드 감독인 김정곤 형제의 '교회의 회복'이라는 교리 강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도 와드 감독인 박경수 감독의 감리하에 감독단 모임 시범이 있었는데, 여기서 감독단이 계획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과 임무에 대한 실연을 보고 자신들이 속한 와드 감독단 모임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윤세영 부장은 '접견과 상담'이라는 세미나를 통해 접견과 상담의 차이점과 감독이 쉽게 오류를 범하기 쉬운 접견 방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람직한 접견이 되기 위한 중요한 7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였다.

또한 스테이크 집행 서기인 서성권 형제의 시테크 전략 강의는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상태 스테이크 부장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신권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일의 능력보다는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담대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훈련 모임에 참석한 사당 와드 감독인 길윤석 형제는 도시를 벗어나 상쾌한 자연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모범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감독단 모임 시범 등은 새로 감독으로 부름 받은 시점에서 아주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었다면서 자주 이런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단은 이번 모

임의 결과를 정리하여 각 와드에 널리 알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격려하여 모든 성도들이 굳건한 신앙 생활을 하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서성권)

부산 스테이크 독신 노년의 모임

지난 7월 7일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는 독신 성인 노년의 모임이 개최되었다.

독신 담당 고등 평의원인 정용환 형제의 감리로 진행된 이번 모임의 주제는 "행복"에 관한 것으로 독신 성인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부산 지역 독신 성인들의 행복에 관한 의식 구조를 상세하게 파악해 나갔다.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1.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 2.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 3. 일에서의 만족에서 오는 성취감과 자기 발전 순으로 응답했으며,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라는 질문에 1. 사랑하고 사랑 받을 때, 2. 영적이라고 느낄 때, 3. 기쁘고 바쁘게 살 때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 밖에 "문"이라는 주제로 테마 극을 보았는데 "돈, 명예, 학식의 방", "가면의 방", "쾌락, 탐닉의 방" 등의 소주제로 나누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을 가질 수 있었다. (이희숙)

부산 스테이크 제3회 여성 대회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6월 23일 상호부조회 자매들만을 위한 특별 모임을 온천 와드에서 개최하였다.

양기욱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상호부조회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고 형제들이 신권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지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의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말씀 순서에서 수정 와드의 임인숙 자매는 "남편의 부름을 듣는 아내의 자세"라는 말씀을 주제로 두 마리 토끼를 잡긴 힘이 들듯이 교회 일과 가정 일을 다 잘하는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힘이 든다며 더 많은 이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광안 와드의 김옥희 자매는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힐라맨의 2천 용사들의 어머니들과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 등을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방어진 와드의 박성란 자매는 부부가 함께 나태해질 때 개인적인 신앙을 먼저 키우는 것이 남편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부부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귀중한 요소임을 전하였으며, 연산 와드의 조화정 자매는 6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형제를 내조하는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킁킁리 자매님의 미소처럼 모임 중 항상 미소하는 것이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라며 서로 함께 노력하여 하나님께 가고 싶은 소망을 간증하였다.

학성 와드의 손순희 자매는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씩 뚜렷한 간증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한가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다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했으며, 온천 와드의 신화숙 사매는 "지도자로서의 아내의 태도"라는 주제로 형제가 하는 일을 자매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남편이 어느 위치, 어느 직위이든지 모사이아서 19장 8-9



부산 스테이크 여성대회 모습

절을 기억한다면 언제라도 동반자적인 입장을 취하여 도울 수 있다고 전해 주었다.

회중 찬송으로 139장 "오 높은 영광 보좌"를 부른 후에 부산 선교부의 허드 자매는 "복음 안에서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란 주제로 자녀들에게 학교 선생님 보다 더 중요하고 훌륭한 교사는 어머니들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항상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하며 함께 모여 가족 기도를 해야 한다고 전하며 아이들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칠 때 경험을 사용하고 복음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스테인크 부장단 제1보좌인 전영준 형제는 아내가 상호부조회 회원임이 자랑스럽다며 남편이 아내의 일을 돕는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남자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교회 발전의 51%가 자매의 몫임을 강조하였으며, 상호부조회 회장인 이무정 자매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즐기라고 권고하며 핑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며, 이성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며, 함께 일하고, 함께 양서를 읽으며, 함께 기도하라고 권고했다.

9명의 잘 준비된 연사들을 통해 함께 모인 90여 명의 자매들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과 신권을 가진 남편에 대한 예의와 자세를 일깨우는 영적인 안식일 오후를 보낼 수 있었다. (이희숙)

안양 스테이크 독산 와드 리아호나 농구단 발족

1996년 7월 6일 안양 스테이크 독산 와드에 서는 새로운 모습의 청소년 모임이 시작되었다. 청남 활동의 활성화와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청남·청녀를 비롯한 독산 와드의 회원들을 활동화 시키고, 비활동 회원과 구도자를 참여시켜 독산 와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리아호나'라는 농구단을 발족하게 된 것이다.

이날 '리아호나' 농구단 창단식은 청남인 이상봉, 김중주, 김중서 형제와 청녀인 김지운, 방영옥, 홍재연 자매, 김병균 감독을 비롯한 청소년 고문과 독신 성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청남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신 형제가 말씀을 하였고 독산 와드 회원들의 열의가 담겨 있는 유니폼을 입고 김병균 감독이 시구를 하였으며, 청남, 청녀, 독신 성인이 함께 한 시범 경기가 열렸다. 함께 참여한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고자 하는 열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이었다.

독산 와드의 '리아호나' 농구단은 이번 여름 방학과 토요일 청소년 모임을 통해서 꾸준히 실력을 쌓을 계획이며, 현재는 순수하게 청남만으로 1팀을 구성하기도 어렵지만 2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농구단 발족을 위해 독산 와드의 장로 정원희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도움을 주었다. (김신)

신길 와드 윤정진 형제

'96 대한민국 화장품 우수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



'21세기 화장품'을 주제로 개최된 '96 대한민국 화장품 우수 디자인 공모에서 강서 스테이크 신길 와드의 윤정진 형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한 화장품 공업협회와 산업 디자인 포장 개발원이 후원하고 나드리 화장품과 중앙일보, SBS서울방송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최한 이번 공모에는 총 869편이 응모를 했으며 윤정진 형제는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이다.

윤정진 형제는 강서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윤재철 형제와 김경자 자매의 삼남 중 둘째로서 현재 용인 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으며 CAD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윤 형제의 작품은 8월 22일부터 산업 디자인 포장 개발원에서 개최된 '96 대한민국 화장품 우수 디자인 공모 전시회에 전시되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 독산 와드의 리아호나 농구단



청소년 대회를 다녀와서

이창현(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지난 7월 24일부터 3박 4일 간 인천 스테이크의 청남·청녀들은 '하회탈'로 더욱 잘 알려진 경상북도 안동 하회 마을에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나는 이번 대회까지 청소년 대회만 다섯 번째 참석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이후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대대장이라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보았다. 모두 4개의 대대 중 우리 대대는 가장 많은 11명의 대대원이 있었는데 모두들 착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형제·자매들이어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즐겁게 마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임을 누구보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번 청소년 대회처럼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고 자연 속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나니 온몸 구석에 있는 뭇지 모를 그 무엇들이 맑고 시원하게 씻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예년에 비해 세미나의 비중을 줄이고 마음껏 놀며, 가슴을 활짝 펴게 해주어 교회 생활은 물론, 학교 생활까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재충전시켜 주는

데 있는 것 같았다.

수영 대회, 수중 배구, 서바이벌 게임, 잠수 시합 등과 같은 물놀이와 농구, 배구 경기와 댄스 경연 대회 등은 공부에 시달린 우리들을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켜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하회 마을 탐방과 안동 박물관 견학은 교과서에서도 배우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둘째날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이란 주제로 역할극을 하였을 때 어느 자매님의 말처럼 적어도 말일성도 가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말에 크게 공감하였다.

이번 대회 중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일 하나는, 저녁에 있을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들 정장을 하고, 머리 모양새까지 한껏 멋을 내고 모였을 때 "아니 저 형제·자매들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지내던 형제·자매들인가?"하고 의아해 할 만큼 멋지고 아름다웠다.

학교에 가면 담배를 피우고 학생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서적들을 갖고 다니곤 하는 친구들을 보다가 무도회에서 보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은 천사들- 바로 그것이었다. 순간 나는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별천지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였다.

마지막 날의 간증 시간에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 다시금 훌륭한 복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과 우리 교회는 예언자를 통해 합당하게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으며, 적당한 때에 복음 선교사로서 참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생각은 물론 열심히 공부하여 장차 말일성도로서 이 사회의 훌륭한 일군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고문님들과 에어컨까지 가동되는 훌륭한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스테이크 부장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편집자 주: 이창현 형제는 현재 인천 연수 고등학교 1학년이며 성전 선교사로 봉사했던 이상철 형제의 장남이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89기

(1996년 7월 15일 - 8월 2일)



〈성 명〉	〈출 신 지〉	〈선 교 부〉
천익주 장로	부산서S/대신W	서울 선교부
최윤식 장로	안양S/시흥W	대전 선교부
천대중 장로	강서S/영등포B	부산 선교부
이준호 장로	청주S/상당W	부산 선교부
남소연 자매	청주S/북대W	서울 선교부
하진희 자매	마산S/진주W	대전 선교부
천선희 자매	강서S/영등포B	서울 선교부
박은희 자매	서울S/화양W	서울 서 선교부
이계숙 자매	천안D/천안B	부산 선교부

사진 설명:

뒷줄 왼쪽부터: 천익주, 최윤식, 천대중, 이준호

앞줄 왼쪽부터: 남소연, 하진희, 천선희, 박은희, 이계숙

새로운 조직

지부장: 황형욱

광주 스테이크 해남 지부

조직 번호: 241083

영자표기: Hae Nam

역원 변경

서울 서 스테이크

사당 와드 감독: 길윤석

(전임자: 서석진)

강서 스테이크

영등포 지부 지부장: 정기만

(전임자: 표석정)

해외로 부름 받은 선교사



박은희 자매
서울S/성동W
1996년 8월 21일
유타 솔트레이크



손옥희 자매
서울 북S/마포B
1996년 9월 4일
캘리포니아



홍세라 자매
광주S/충장W
1996년 9월 4일
유타 템플스퀘어



서동현 형제
서울 북S/녹번W
1996년 9월 18일
유타 솔트레이크

이리라 자매
서울S/청운W
1996년 8월 21일
하와이